

남자대학생의 자기이미지와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이명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김현주

目 次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결과 및 논의

V.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 론

의복은 인간의 가장 친밀한 부분으로서 자기의 표현이라고 사료되어 왔으며,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의복을 통하여 타인에게 자기를 나타내며, 자기정체감을 느낀다. 즉 개인의 표현방법에 있어 차이는 있으나 우리는 의복을 통해서 자신의 내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복을 착용하게 된다. 따라서 한 개인이 자기자신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자기이미지는 의복과 관련된 인간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자기의 구성이미지는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는 형태상 실제로 지각되는 자기와 그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자기를 포함한다. 따라서 자기에 대한 유형을 현실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로 이분할 수 있다. 이때 이상적인 자기이미지와 현실적 자기이미지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의복이 흔히 사용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실제적 자기이미지보다 더욱 긍정적인 자기이미지를 갖는다(정인희,

이은영, 1996). 그러므로 착용하는 의복에 따라서 착용자의 이미지가 보완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의복과 자기이미지와와의 관련 연구에서 자기이미지는 의류 상품이나 상표, 선호 스타일 이미지와 일치한다고 하였다(장은영, 이선재, 1994; 남미우, 1987; 나영은, 1992). 그러나 구체적인 자기이미지가 특정한 의복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개방된 문화체계로 생활양식이 변화됨에 따라 남성들도 가치관의 변화를 수반하면서 옷차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다양한 의복 스타일을 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남성들의 의복행동을 자기이미지와 관련시켜 연구하는 것이 필요시된다. 의복행동은 지금까지 다양한 변인으로 나누어 연구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남자대학생에게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변인을 선택하여 유행, 심미성, 정숙성, 동조성, 편안성의 5가지 내용을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이미지의 요인을 조사하고 현실적 자기이미지와 이상

적 자기이미지가 인구통계적 변인과 함께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남자대학생의 자기이미지 요인을 분류한다.
2. 남자대학생의 현실적 자기이미지와 이상적 자기이미지의 차이를 조사한다.
3. 현실적 자기이미지와 이상적 자기이미지가 연령, 전공, 의복비와 함께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4. 이상적 자기이미지와 현실적 자기이미지의 일치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를 밝힌다.

II. 이론적 배경

1. 의복과 자기이미지

자기이미지는 자아이미지와 혼용하여 사용되어 왔으나, self-image의 대응 한국어는 자기이미지가 적절하다(사회심리학용어집, 1985; 의류용어집, 1994). 개인의 자기개념 속에는 자기이미지 부분과 자기 평가적 부분의 두가지가 공존되는데, 자기이미지는 개인이 자신을 지각하는 상으로 자기 묘사를 위해 사용된다.

자기이미지를 보는 관점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자기이미지를 단일의 유형으로 보는 단일차원적 관점과 자기이미지가 두가지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다차원적 관점이다(김미라, 1991). 자기이미지를 다차원적 관점에서 고려할 때 Sirgy(1982)는 자기이미지를 실제 자기이미지(actual self-image), 이상적 자기이미지(ideal self-image), 사회적 자기이미지(social self-image), 이상적 사회적 자기이미지(ideal social self-image)의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자기이미지는 의복착용 및 상호작용에 관련된 인간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변수이다. 의복은 이상적 자기이미지와 지각된 자기이미지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데 사용되어, 자기이미지를 보

완해주는 역할을 한다(정인희, 이은영, 1996). 마케팅 분야에서는 제품이나 상표, 점포의 선호 혹은 구매에 더 영향을 주는 것이 실제적 자기이미지인가 이상적 자기이미지인가를 연구해왔고(김미라, 1991), 의류학 영역에서는 선호하는 의복스타일이나 상표의 이미지에 가까운 것이 실제적 자기이미지인지 이상적 자기이미지인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남미우, 1987; 나영은, 1992; 김현주, 1997).

정장스타일의 여성기성복에 대한 상표선호에 대해서 조사한 정근택(1987)의 연구결과에서는 상표선호에는 실제 자아이미지가 이상적 자아이미지보다 더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라(1991)의 연구에서는 의류점포이미지와 자아이미지 일치성이 높을수록 점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특히 전문점의 경우 실제 자아 일치와 이상적 자아 일치의 영향을 모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들은 실제 자아 일치성과 이상적 자아 일치성이 모두 높은 경우 가장 그 점포를 선호하였다. 화장품 구입시 상표이미지와 자기이미지에 관해 조사한 김치환(1993)의 연구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이상적인 이미지보다 현재의 자기 자신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상표를 구입,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구입에 대한 임병수(1984)의 연구에 의하면,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이 자아이미지와 제품이미지의 합치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데, 자아 합치 정도가 높을수록 소비자의 구매확률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제품의 구매결정에 소비자의 자기이미지 일치도가 영향을 주며, 제품에 따라 현실적 이미지와 이상적 이미지의 영향에 대한 차이가 있고, 특히 현실적 이미지와 이상적 자기이미지의 일치도가 높을 때 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은영·이선재(1994)의 연구에서는 의류상품 이미지가 자아이미지와 일치할수록 상품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utman과 Mills(1982)의

연구에서는 유행선도자는 추종자에 비해 자기 이미지를 보다 더 세련된, 현대적, 창조적, 개성적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자아이미지와 두 의복품목(외의, 내의)에서 선호 상표이미지와 관련성을 비교 조사한 남미우(1987)의 연구결과에서는 선호 상표이미지와 여대생의 현실적, 이상적 자아이미지와 일치도가 높은 집단은 의복구매 의도와 실제 구매가 높게 나타났다. 외의 품목의 경우 의복구매 의사결정은 현실적 자아일치도의 영향이 크고, 내의 품목의 경우 의복구매 의사결정 중 구매의도는 이상적 자아일치도가 영향을 주고 실제 구매에는 현실적 자아일치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복의 경우에도 의류품목에 따라 현실적 이미지와 이상적 이미지가 미치는 영향이 달리 나타났으며, 또한 구매 의도와 실제 구매의 상황에 따라서도 두가지 유형의 자기이미지가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었다.

나영은(1992)의 연구에서는 의복스타일 이미지와 자기이미지가 유사할수록 그 의복의 스타일이 선호되었고, 실제 자기이미지보다 이상적 자기이미지와 유사성이 스타일 선호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명희, 김현주(1997)는 의복 스타일 선호가 현실적 자기이미지 및 이상적 자기이미지와 관련이 되는 정도는 스타일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이것은 자기이미지가 구체적으로 선호하는 의복스타일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이상에서 볼 때 자기이미지와 일치도가 높을수록 제품 선호 및 구매확률이 증가하지만 현실적 자기이미지와 이상적 자기이미지와 유사성이 선호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달리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 의복행동

의복행동은 의복에 대한 태도, 관심, 습관, 선택, 착용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과 집단의

가치관, 성격, 신분 등을 반영한다. 선행연구에 사용된 의복행동 변인으로는 Creekmore(1971)가 심미성, 정숙성, 흥미성, 편안성, 주의집중성, 관리성, 사회적 인정성, 심리적 의존성 등을 사용하여 그 이후의 의복행동 연구에 기초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행, 심미성, 정숙성, 동조성, 편안성 등의 5가지를 택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유행성은 의복선택시 유행을 고려하고 변화하는 유행과 보조를 맞추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강혜원(1974)의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향적인 사람, 저학년 학생, 여대생이 유행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고, 남학생들은 개성이 높을수록 유행에는 관심이 낮았다. 계층, 소득, 의복비 등은 유행추구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요인이었으며(이화연, 1989; 노미경, 1983; Tigert, Ring, & King, 1976; Behling, 1985), 또한 정치적 가치(Creekmore, 1963)와 사회성 및 사회활동(이남순, 1989)이 유행추구와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성인남자들의 유행에 대한 관심을 연령별로 볼 때 20대에서 관심이 가장 높고, 50대에서는 낮게 나타났다(고애란, 1987). 직장남성의 경우 유행혁신자 집단은 비혁신자 집단보다 신분상징성을 더 중요시하였고(권순기, 1990), 보수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보다 유행몰입이 높은 편이었다(김효경, 이명희, 1992). 전체적으로 볼 때 성별, 연령, 계층, 성격 등은 유행추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특성인데 남자보다 여자가 유행에 더 관심이 높으며 사회성이 높고 외향적인 사람과 젊은층이 유행을 더 중요시하였다.

심미성은 아름다운 의복이나 장식을 자신의 신체적 외모와 조화를 이루도록 착용하여 외모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의복의 심미성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중요시하며(Humphrey, Klaasen, & Creekmore, 1971), 대학생은 남녀 모두 예능계 전공이 심미성이 가장 높았고(이명희, 1983), 여대생은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심미성이 더 높았다(이은주, 1982). 또한 주부들은 연령

이 젊을수록(이인자, 1978),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심미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선옥, 1983; 이명희, 1987; 김정호, 1978). 따라서 심미성은 연령이 낮고, 학력, 소득이 높을수록 중요시되며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숙성은 의복에 있어서 신체의 과도한 노출 즉, 옷이 많이 파이거나 몸에 밀착된 것을 입을 때 또는 보았을 때의 느낌에 관한 것(강혜원, 1979)으로 성적인 표현과 신체노출의 금지를 뜻한다. 박찬부(1980)는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은 정숙성을 중요시하며 단순하고 눈에 띄지 않는 정숙한 의복을 착용한다고 하였으나, 정하신(1985)은 사교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의복의 정숙성이나 동조성을 중요시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가문을 중요시하거나(최순희, 박찬부, 1981) 종교적인 면이 강할수록 정숙성에 관심이 높았고(Christiansen & Kernaleguen, 1971; 김광경, 1973), 대학생은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노출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미련, 1994). 또한 남자대학생은 자아개념이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복의 예의성을 더 중요시하였다(이명희, 1983). 즉 정숙성은 심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어 정숙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사교성은 낮으나 종교성이 높으며, 남자의 경우에는 자존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의복의 동조성은 한 사회집단의 의복규범을 수용하며, 특정 집단의 규범에 따라 의복을 착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들은 여성보다 의복 동조가 심하게 나타나는데,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병미(1975)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은 타인과 같게 보이고 싶은 욕구로, 여학생은 다르게 보이고 싶은 욕구로 의복을 선택하므로 동조성이 남학생들에게 중요한 의복행동이라고 하였다. 의복 동조성은 사회적 가치와 정적인 관계가 있었고(Creekmore, 1963), 자아개념이 높거나, 자신감이 높고, 자신이나 타인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감소되었다(이명희, 1983; 정하신, 1985; 정미실, 1982). 또한 성인남자는 중류층이 의복의 동조성을 더 중요시하였으며 정치적 가치관이 낮을수록(이선화, 1984), 사회적 내향성이 강할수록 의복 동조성이 높았다(홍선옥, 1983). 전체적으로 볼 때 의복 동조성은 여성보다 남성이, 상류층이나 하류층보다 중류층이 더 중요시하였으며, 의복 동조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이 낮았으나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내향성이 높은 편이었다.

의복선택시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편안성의 요구 정도에는 개인차가 크지만 여가활동과 생활이 자유로워진 오늘날에는 특히 편안성이 중요시되고 있다(정혜영, 1985). 편안성은 의복을 착용했을 때의 온도, 질감에 대한 신체적 반응 또는 의복이 밀착되거나 여유를 가지는 데 대한 적합성과 관련되어 편안한 의복을 선호하는 것을 뜻한다. 이경손(1979)의 연구에서 성인남자에게는 사업상 중요한 때를 제외하고 편안성이 의복의 가장 중요한 선택 요인으로 나타났고, 또한 편안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홍금희, 1984), 학력이 높을수록 중요시되었다(박찬부, 1980). 따라서 편안성은 특히 남성에게 중요시되는 의복 특성이며 착용자의 활동성이나 연령, 학력 등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Ⅲ. 연구방법

1. 측정도구

본 연구는 질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자기이미지 측정 문항, 의복행동 측정 문항, 인구통계적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자기이미지 측정은 Malhotra가 개발한 척도로써 남미우(1987)가 사용한 14개 형용사를 사용하였다. 이미지 측정은 현실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를 각각 조사하였으며 7단계의 의미미분척도를 사용하였다.

의복행동 측정은 선행연구(박숙경, 1991; 이선

화, 1984; 이명희, 1983; 박은주, 1984; 홍선옥, 1983)에서 사용한 문항 중 41개의 문항을 택하여 조사 대상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그 내용 구성은 유행에 대한 관심 8문항, 심미성 8문항, 정숙성 9문항, 동조성 9문항, 편안성 7문항으로 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어 5단계 Likert 척도법으로 측정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인에 관한 문항은 학년, 연령, 전공, 월 평균 의복지출비를 조사하였다.

2. 표집대상,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1995년 9월중에 시행되었다. 표본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하였으며 조사대상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중앙대, 홍익대의 남자대학생이었다. 질문지는 450부를 배부하였으며 그중 370부를 회수하여 기입이 불완전하거나 무성의한 것을 제외한 총 342부를 통계자료로 사용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의 분포에서 학년은 1학년이 22.2%, 2학년이 38.9%, 3학년이 19.6%, 4학년이 19.3%였고, 전공분야는 인문사회계가 28.1%, 자연계가 47.7%, 예체능계가 24.3%로 구성되었다. 연령 분포는 18~19세가 17.5%, 20~21세가 34.3%, 22~23세가 22.5%, 24~25세가 19.0%, 26~31세가 6.7%로서 대부분 20대 전반의 연령층이었다. 월 평균 의복비는 2만원 미만이 22.5%, 2~4만원 미만이 31.9%, 4~6만원 미만이 20.2%, 6~10만원 미만이 15.8%, 10~15만원 미만이 6.7%, 15만원 이상이 2.9%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복비 지출은 2~4만원을 지출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았고, 응답자의 대부분이 10만원 미만의 비용을 의복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통계분석 방법은 요인분석, 적률상관관계, 다변인회귀분석, t-검증, paired t-검증 등이 실시되었다.

IV. 결과 및 논의

1. 의복행동의 요인분석

의복행동 41개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처음에 설정한 내용에 따라 5개의 요인을 선택하였다. 1차 요인분석을 실시해서 모든 요인에서 요인부하량이 낮은 5개의 문항을 빼고 다시 1차 때와 같은 방법으로 2차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 요인과 문항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문항 6개를 제외하고 30개의 문항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를 <표 1>에 요약하였다. <표 1>에서는 요인별로 대표적인 문항만을 제시하였다.

요인 1의 문항은 의복구입시 유행성 고려도, 유행에의 관심도, 유행 정보의 습득에 대한 관심을 조사하는 내용이므로 유행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의복착용시 색의 조화, 의복과 신체 및 외모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내용이므로 심미성이라고 하였다. 요인 3은 의복착용시 꼭꼭거나 노출이 많은 선정적인 옷차림에 관한 태도를 조사하는 문항이므로 정숙성이라고 하였다. 요인 4는 남자대학생들이 동료집단의 의복착용형태에 동조하는 정도를 묻는 내용이므로 동조성이라고 하였다. 요인 5는 의복을 착용했을 때의 온도, 촉감이나 편안함, 쾌적성의 고려 등을 조사하는 문항이므로 편안성이라고 하였다. 요인 1에서부터 5까지의 문항수는 요인마다 각각 6, 6, 5, 7, 6개의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각각 0.53, 0.45, 0.38, 0.49, 0.43 이상이었다.

요인별 고유치와 전체 변량의 비율을 살펴보면 요인 1의 유행은 고유치가 5.34, 변량의 비율이 15.2%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요인 2는 고유치가 3.49, 변량의 비율이 10.0%였다. 요인 3은 고유치가 2.50, 변량의 비율이 7.1%였으며, 요인 4는 고유치가 1.60, 변량의 비율이 4.6%였다. 요인 5는 고유치가 1.50, 변량의 비율이 4.3%로 나타났다.

(N=342)

<표 1> 의복행동의 요인분석

| 요 인 | 고유치 | 전체변량(%) | 누적변량(%) |
|---|------|---------|---------|
| 요인 1. 유행(6개 문항) 나는 옷을 사거나 맞출 때에는 항상 유행을 염두에 두고 마련한다. | 5.34 | 15.2 | 15.2 |
| 요인 2. 심미성(6개 문항)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세련되게 옷을 입는다고 자부한다. | 3.49 | 10.0 | 25.2 |
| 요인 3. 정숙성(5개 문항) 꼭 끼고 달라붙은 바지를 입은 사람을 보면 민망하다. | 2.50 | 7.1 | 32.4 |
| 요인 4. 동조성(7개 문항) 나는 친구들이 흔히 입고 있는 스타일이나 색깔의 옷을 선택한다. | 1.60 | 4.6 | 36.9 |
| 요인 5. 편안성(6개 문항) 나는 옷을 살 때 편한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선택하게 된다. | 1.50 | 4.3 | 41.2 |

<표 2> 자기이미지의 요인분석

(N=342)

| 요인 1. 성숙한-비성숙한 | 요인 부하량 | 요인 2. 개성적-평범한 | 요인 부하량 |
|--|--------|--|--------|
| 겸손한-겸손하지 않은 | .72 | 시대 감각이 있는-시대에 뒤 떨어진 | .79 |
| 홍분하기 쉬운-침착한 | -.64 | 개성이 없는-개성이 뚜렷한 | -.66 |
| 성숙하지 않은-성숙한 | -.57 | 쾌활한-쾌활하지 못한 | .58 |
| 남을 편하게 만드는-남을 불안하게 만드는 | .54 | | |
| 검소한-사치스러운 | .50 | | |
| 이성적인-감정적인 | .37 | | |
| 고유치 : 3.10 전체 변량 : 22.2(%) 누적 변량 : 22.2(%) | | 고유치 : 1.83 전체 변량 : 13.1(%) 누적 변량 : 35.2(%) | |
| 요인 3. 보수적-개방적 | 요인 부하량 | 요인 4. 지배적-순종적 | 요인 부하량 |
| 격식 차리는-격식 차리지 않는 | .76 | 지배적인-순종적인 | .73 |
| 까다로운-까다롭지 않은 | .69 | 남성적인-여성적인 | .59 |
| 보수적인-개방적인 | .69 | | |
| 고유치 : 1.99 전체 변량 : 10.6(%) 누적 변량 : 45.9(%) | | 고유치 : 1.16 전체 변량 : 8.3(%) 누적 변량 : 54.1(%) | |

2. 자기이미지의 요인분석

자기이미지의 내용을 분류하기 위하여 현실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의 각 문항점수를 합하여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고유치 1 이상을 기준으로 4개의 요인을 선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요인 1의 문항 내용은 겸손한, 침착한, 이성적인, 성숙한 등이 포함되었으므로 요인 1의 이름을 '성숙한-비성숙한' 이라고 하였다. 요인 2의 문항 내용은 시대감각이 있는, 쾌활한, 개성이 뚜렷한 등이 포함되었으므로 요인 2의 이름

을 '개성적-평범한'이라고 하였다. 요인 3의 문항 내용은 격식 차리는, 까다로운, 보수적인 등이 포함되었으므로 요인 3의 이름을 '보수적-개방적' 이라고 하였다. 요인 4의 문항 내용은 남성적인, 지배적인 등이 포함되었으므로 요인 4의 이름을 '지배적-순종적'이라고 하였다. 요인 1에서부터 4까지의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각각 0.37, 0.58, 0.69, 0.59 이상이었다.

요인 1은 고유치가 3.10이고 전체 변량의 비율이 22.2%로서 요인 1은 자기이미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로 나타났다. 요인 2, 3, 4의 전체 변량의 비율은 각각 13.1%, 10.6%, 8.3%였다.

〈표 3〉 현실적 자기이미지와 이상적 자기이미지의 차이(paired t-test)

(N=342)

| 자기이미지 요인 | 현실적 자기이미지 | | 이상적 자기이미지 | | t |
|----------|-----------|------|-----------|------|----------|
| | M | SD | M | SD | |
| 성숙한-비성숙한 | 4.54 | .80 | 5.67 | .80 | -22.08** |
| 개성적-평범한 | 4.76 | 1.07 | 5.92 | .87 | -19.31** |
| 보수적-개방적 | 3.86 | 1.18 | 3.25 | 1.01 | 9.65** |
| 지배적-순종적 | 4.56 | 1.02 | 5.26 | 1.03 | -11.79** |

**p<.01

남자대학생의 현실적 자기이미지와 이상적 자기이미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의 평균치는 각 요인의 문항 합계 점수를 문항수로 나눈 것이다.

〈표 3〉에서 현실적 자기이미지와 이상적 자기이미지는 모든 요인에서 $p<.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성숙한-비성숙한 이미지는 이상적 이미지의 평균치가 높아 남자대학생은 실제 자기이미지보다 더 성숙한 이미지를 추구하였다. 개성적-평범한, 지배적-순종적 이미지도 이상적 이미지의 평균치가 높아 남자대학생은 실제 자기이미지보다 더 개성적이고 지배적인 이미지를 추구하였다. 보수적-개방적 이미지는 현실적 이미지의 평균치가 높아 남자대학생은 이상적인 면에서 보수적인 이미지는 선호하지 않으며 실제보다 더 개방적인 이미지를 추구하였다.

따라서 남자대학생은 실제보다 더 성숙하며 지배적인 이미지, 개성적이며 개방적인 이미지를 추구함을 알 수 있었다.

3. 자기이미지와 의복행동

자기이미지와 인구통계적 변인이 동시에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먼저 각 독립변인간의 상호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전공은 예체능계는 1점, 인문사회계와 자연계는 0점을 주었다.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p<.01$ 유의수준에

서 검토한 결과, 현실적, 이상적 자기이미지에서 성숙한 이미지가 높을수록 보수적 이미지가 낮았으며($r=-.13, -.18$), 이상적으로 성숙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사람은 지배적 이미지를 선호하였다($r=.24$). 현실적 이미지로서 개성적 이미지가 높을수록 보수적 이미지가 낮았고($r=-.18$), 성숙한, 지배적 이미지가 높았는데($r=.20, .35$), 이러한 관계는 이상적 이미지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r=-.31, .51, .27$). 또한 연령이 많을수록 자신을 성숙한 이미지로 평가하였고($r=.20$), 예체능계 전공은 타전공보다 현실적, 이상적으로 더 개성적인 이미지를 추구하였다($r=.25, .13$). 의복비 지출이 높을수록 현재 자신을 개성적 이미지로 평가하였으나($r=.32$), 이상적으로는 지배적 이미지의 추구도가 낮았다($-.14$).

현실적 자기 이미지 4개 요인 및 연령, 전공, 의복비가 동시에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상적 자기이미지 4개 요인 및 연령, 전공, 의복비가 동시에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단계적(stepwise)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표 4〉에서 볼 때 유행에 유의적인 영향을 준 것은 의복비와 현실적 자기이미지 중에서 개성적, 보수적, 지배적 이미지로 나타났으며 4개 변인을 통한 예언율은 29.3%였다. 보수적 이미지는 유행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으므로($\beta=-.14$), 개방적 이미지가 높을수록 유행을 중요시하였다. 이것은 의복지출비가 높고 개성적, 개방적, 지배적 이미지가 높을수록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뜻한

<표 4> 현실적 자기이미지에 의한 다중회귀분석

(N=342)

| 변인 | b | beta | t | R ² |
|---------------------|------|------|---------|----------------------|
| DV : 유행 의복비 | 1.21 | .39 | 7.95** | R ² =.293 |
| 개성적-평범한 | .36 | .28 | 5.32** | F=35.37** |
| 보수적-개방적 | -.29 | -.14 | -2.89** | C=8.42 |
| 지배적-순종적 | .11 | .09 | 2.03* | |
| DV : 심미성 의복비 | .50 | .42 | 7.94** | R ² =.287 |
| 개성적-평범한 | .66 | .23 | 4.72** | F=27.32** |
| 지배적-순종적 | -.39 | -.21 | -4.26** | C=9.13 |
| 보수적-개방적 | .12 | .11 | 2.38* | |
| 연령 | .12 | .11 | 2.38* | |
| DV : 정숙성 보수적-개방적 | .22 | .20 | 3.86** | R ² =.065 |
| 개성적-평범한 | -.15 | -.12 | -2.30* | F=11.88** |
| | | | | C=15.89 |
| DV : 동조성 의복비 | -.30 | -.25 | -4.47** | R ² =.057 |
| 개성적-평범한 | .39 | .13 | 2.35* | F=10.45** |
| | | | | C=22.33 |
| DV : 편안성 연령 | .24 | .17 | 3.22** | R ² =.053 |
| 지배적-순종적 | .25 | .15 | 2.79** | F=9.57** |
| | | | | C=12.94 |

*p<.05 **p<.01 DV=종속변인 C=Constant

<표 5> 이상적 자기이미지에 의한 다중회귀분석

(N=342)

| 변인 | b | beta | t | R ² |
|---------------------|------|------|---------|----------------------|
| DV : 유행 의복비 | 1.27 | .41 | 8.39** | R ² =.289 |
| 성숙한-비성숙한 | -.17 | -.19 | -3.54** | F=27.65** |
| 개성적-평범한 | .33 | .21 | 3.85* | C=13.71 |
| 지배적-순종적 | -.20 | -.10 | -2.09* | |
| DV : 심미성 의복비 | .99 | .35 | 7.37** | R ² =.235 |
| 개성적-평범한 | .41 | .29 | 6.15** | F=34.94** |
| 연령 | .18 | .11 | 3.29* | C=5.74 |
| DV : 정숙성 보수적-개방적 | .20 | .16 | 2.92** | R ² =.083 |
| 성숙한-비성숙한 | .21 | .26 | 4.27** | F=10.32** |
| 개성적-평범한 | -.29 | -.20 | -3.13* | C=12.35 |
| DV : 동조성 의복비 | -.20 | -.14 | -2.56* | R ² =.019 |
| 개성적-평범한 | | | | F=6.53* |
| | | | | C=22.60 |

| | | | | |
|----------|-----|-----|--------|----------------------|
| DV : 편안성 | | | | R ² =.056 |
| 연령 | .25 | .17 | 3.27** | F=10.09** |
| 성숙한-비성숙한 | .11 | .16 | 2.97** | C=11.31 |

*p<.05 **p<.01 DV=종속변인 C=Constant

다. 이러한 결과는 유행 선도자가 개성적 이미지가 높았다는 Gutman과 Mills(1982)의 연구 내용을 지지하며, 노미경(1983), Tigert 등(1976)의 연구에서 계층 및 의복비가 유행추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점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보수주의자가 자유주의자보다 유행몰입이 높았다는 선행연구(김효경, 이명희, 1992) 결과와는 불일치하였다. <표 5>에서 볼 때 이상적 자기이미지 중에서 성숙한, 개성적, 지배적 이미지와 의복비는 유행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4개 변인을 통한 예언율은 28.9%였다. 즉 이상적 자기이미지로서 개성적 이미지를 추구하는 남자대학생은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성숙하고 지배적인 이미지를 추구할수록 유행에 관심이 낮았다.

심미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준 것은 의복비 및 연령과 현실적 자기이미지 중에서 개성적, 지배적, 보수적 이미지로 나타났으며 5개 변인을 통한 예언율은 28.7%였다. 지배적 이미지는 부적 관계를 나타냈으므로(beta=-.21), 순종적 이미지가 높을수록 심미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것은 개성적, 순종적, 보수적 이미지가 높고 의복비출비와 연령이 많을수록 의복의 심미성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뜻한다. 이상적 자기이미지 중에서 개성적 이미지와 의복비, 연령은 심미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3개 변인을 통한 예언율은 23.5%였다. 즉 이상적으로 개성적 이미지를 추구하는 남자대학생은 심미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의복비와 심미성과의 관계는 소득이 심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선행연구(홍선옥, 1983 : 이명희, 1987) 결과와 일치하였다.

정숙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준 것은 현실적 자기이미지 중에서 보수적, 개성적 이미지로 나타났으며 2개 변인을 통한 예언율은 6.5%였다. 인구통계

적 변인은 정숙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개성적 이미지는 부정적 영향을 주었으므로 ($\beta = -.12$), 평범한 이미지가 높을수록 정숙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것은 보수적이며 평범한 이미지가 높은 남자대학생은 의복의 정숙성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뜻한다. 이상적 자기이미지 중에서 보수적, 성숙한, 개성적 이미지는 정숙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3개 변인을 통한 예언율은 8.3%였다. 즉 이상적 자기이미지로서 보수적이고 성숙하며 평범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남자는 정숙성에 관심이 높았다. 이처럼 현실적 자기이미지와 이상적 자기이미지가 보수적일수록 정숙성을 중요시한 것은 보수적인 이미지를 지닌 사람들은 의복에서도 신체노출이 적고 점잖은 옷차림을 선호함으로써 개인의 보수적인 자기이미지가 의복에 반영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보수적 이미지와 정숙성과의 관계는 사교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은 의복의 정숙성을 중요시하지 않고(정하선, 1985), 종교적이거나 가문을 중요시할수록 정숙성에 관심이 높았던 선행연구(Christiansen, 1971; 최순희, 박찬부, 1981)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간주된다.

동조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준 것은 의복비와 함께 현실적 자기이미지 중에서 개성적 이미지로 나타났으며 2개 변인을 통한 예언율은 5.7%였다. 개성적 이미지는 동조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으므로 ($\beta = -.25$), 평범한 이미지가 높을수록 동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또한 의복지출비가 많을수록 동조성을 중요시하였다. 이상적 자기이미지 중에서도 개성적 이미지는 동조성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1개 변인을 통한 예언율은 1.9%였다. 여기서 평범한 이미지가 동조성에 미친 영향은 사회적 가치가 높을수록 유행을 중요시하였던 Creekmore(1963)의 연구와 유사하며 지도자 유형의 인간이 의복 동조성을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이선화(1984)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으로 간주된다. 즉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

고자 하는 남자는 평범한 이미지를 추구하므로 의복의 동조성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편안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준 것은 연령과 함께 현실적 자기이미지 중에서 지배적 이미지로 나타났으며 2개 변인을 통한 예언율은 5.3%였다. 즉 연령이 많고 지배적 이미지가 높을수록 편안성을 중요시하였다. 이상적 자기이미지 중에서 성숙한 이미지는 연령과 함께 동조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2개 변인을 통한 예언율은 5.6%였다. 이것은 이상적 자기이미지로서 성숙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남자대학생은 편안성을 중요시함을 뜻한다.

이상에서 볼 때 현실적, 이상적 이미지 중에서 의복 유행과 의복 심미성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이미지는 개성적 이미지로서 현재 개성적 이미지가 높거나 이상적으로 개성적 이미지를 추구하는 남자는 자기 이미지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의복의 유행과 심미성을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성적 이미지가 높은 남자는 정숙성과 동조성을 중요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개성이 뚜렷한 이미지를 지닌 사람은 의복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두드러지기를 원하므로 의복의 유행과 심미성을 중요시하고 사회적 규범에 일치하는 의복이나 다른 사람과 비슷한 옷차림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유행에 앞선 눈에 띄는 옷차림을 함으로써 자신의 개성을 뚜렷이 나타내 보이고 싶은 욕구가 의복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풀이된다.

이상적 자기이미지 중 성숙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남자는 정숙성과 편안성을 중요시하고 유행에는 관심이 낮은 편이었는데, 이것은 성숙한 이미지를 희망하는 사람은 겉모습보다는 내면적인 것에 관심을 두게 되므로 의복에서도 쉽사리 변화하는 유행에 신경쓰지 않고, 의복의 본질적인 기능으로서 편안한 것과 의복의 사회적 규범을 중요시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즉 이상적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성숙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태도가 의복을 통하여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본다

전체적으로 현실적 자기이미지와 이상적 자기

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보면 현실적 이미지와 이상적 이미지에서 공통적으로 개성이 뚜렷한 자기이미지를 지닐수록 의복의 유행 및 심미성을 중요시하였고 동조성은 중요시하지 않았으며, 보수적인 이미지를 지닐수록 의복의 정숙성을 중요시하였다. 따라서 남자대학생의 자기이미지 중에서 개성적인 이미지와 보수적인 이미지가 특히 의복행동에 뚜렷이 반영되며, 의복행동 중에서는 유행과 심미성이 자기이미지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실적 자기이미지와 이상적 자기이미지의 차이점으로는 보수적 이미지와 지배적 이미지는 현실적 자기이미지로서 의복행동에 영향을 주었으나 성숙한 이미지는 이상적 자기이미지로서 영향을 주었다. 즉 이미지의 특성에 따라 이상적 자기이미지와 현실적 자기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근택(1987)의 연구에서 의복상표 선호에 실제 자아 이미지가 더 영향을 주었고, 나영은(1992)의 연구에서 의복 스타일 선호에 이상적 자아 이미지가 더 영향을 주었다고 한 점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미라(1991), 남미우(1987) 이명희, 김현주(1997)의 연구에서 현실적, 이상적 자아 이미지가 동시에 점포 선호, 의복구매, 의복스타일 선호에 영향을 준 결과와는 일치하였다.

4. 자기이미지 일치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

자기이미지 일치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현실적 자기이미지와 이상적 자기이미지의 일치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먼저 각 문항에 대한 현실적 이미지와 이상적 이미지의 점수차를 산출하여 각 문항의 점수차의 합계를 계산하였다. 그 다음에 합계된 점수의 분포도를 내어 일치도에 따

라 세 집단을 구분하였다. 자기이미지 일치도가 낮은 집단은 점수 범위가 28~43점으로 24.6%였고 일치도가 높은 집단은 점수 범위가 2~15점으로 24.6%였다. 자기이미지 일치도가 중간인 집단은 점수 범위가 16~27점으로 50.8%였으나 자기이미지를 일치집단, 비일치집단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기 위해 중간집단은 제외시켰다. 따라서 일치집단은 자기이미지 일치도가 높은 집단이고 비일치집단은 자기이미지 일치도가 낮은 집단이다.

<표 6>에서 볼 때 자기이미지 일치도에 따라 의복행동 중 동조성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유행, 심미성, 정숙성, 편안성 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동조성의 평균치를 보면 현실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이미지가 일치하지 않는 집단은 일치집단보다 의복행동에서 동조성이 더 높았다. 이것은 현실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가 불일치한 사람은 불안한 심리가 있어서 다른 사람과 비슷한 옷차림을 함으로써 자신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며, 외부 기준에 일치시키려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표 6> 자기이미지 일치에 따른 의복행동

| 자기이미지 일치 의복행동 | 일치집단 (N=84) | | 비일치집단 (N=84) | | t |
|------------------|----------------|------|-----------------|------|---------|
| | M | SD | M | SD | |
| 유행 | 16.15 | 3.97 | 15.40 | 4.29 | 1.18 |
| 심미성 | 19.56 | 3.12 | 19.12 | 3.95 | .80 |
| 정숙성 | 16.51 | 3.96 | 16.20 | 3.42 | .54 |
| 동조성 | 18.19 | 3.3 | 19.99 | 3.90 | -3.22** |
| 편안성 | 20.48 | 3.12 | 20.28 | 3.46 | .37 |

** $p < .01$

V. 결 론

본 연구는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이미지의 요인을 조사하고 현실적 자기이미지와 이상적 자기이미지가 인구통계적 변인과 함께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남자대학생의 자기이미지는 4개 요인으로 분류되어, 성숙한-비성숙한, 개성적-평범한, 보수적-개방적, 지배적-순종적 이미지로 나타났다.

2. 남자대학생은 현실적 자기이미지와 이상적 자기이미지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현실보다 이상적으로 더 성숙한이미지, 지배적인 이미지, 개성적, 개방적인 이미지를 추구하였다.

3. 자기이미지의 상호상관관계에서 현실적, 이상적 이미지로서 개성적 이미지가 높은 남자대학생일수록 개방적, 성숙한, 지배적 이미지가 높았다. 현실적, 이상적 이미지로 성숙한 이미지가 높을수록 개방적 이미지가 높았으며, 이상적으로 성숙한 이미지를 추구할수록 지배적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4. 남자대학생의 현실적 자기이미지와 인구통계적 변인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유행은 의복지출비가 높고 개성적, 개방적, 지배적 이미지가 높을수록 중요시하였으며, 4개 변인을 통한 예언율은 29.3%였다. 심미성은 개성적, 순종적, 보수적 이미지가 높고 의복지출비와 연령이 많을수록 중요시하였으며, 5개 변인을 통한 예언율은 28.7%였다. 정숙성은 보수적이며 평범한 이미지가 높을수록 중요시하였으며, 동조성은 평범한 이미지가 높고 의복지출비가 많을수록 중요시하였다. 편안성은 연령이 많고 지배적 이미지가 높을수록 중요시하였다.

5. 남자대학생의 이상적 자기이미지와 인구통계적 변인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유행은 의복지출비가 높고 개성적 이미지를 추구할수록 높았고, 성숙한 이미지와 지배적 이미지를 추구할수록 낮았으며, 4개 변인을 통한 예언율은 9%였다. 심미성은 의복지출비와 연령이 많고, 개성적 이미지를 추구할수록 중요시하였으며, 3개 변인을 통한 예언율은 23.5%였다. 정숙성은 보수적이고 성숙하며 평범한 이미지를 추구할수록 중요시하였으며, 동조성은 평범한 이미지를 추구할

수록 높았다. 편안성은 연령이 많고 성숙한 이미지를 추구할수록 중요시하였다.

6. 현실적 자기이미지와 이상적 자기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보면 공통적으로 개성이 뚜렷한 자기이미지를 지닌 남자대학생일수록 의복의 유행 및 심미성을 중요시하였고 동조성은 중요시하지 않았으며, 보수적인 이미지를 지닐수록 의복의 정숙성을 중요시하였다. 또한 현실적 자기이미지와 이상적 자기이미지의 차이점으로는 보수적, 지배적 이미지는 현실적 자기이미지로서 의복행동에 영향을 주었으나 성숙한 이미지는 이상적 자기이미지로서 영향을 주었다. 즉 이미지의 종류에 따라 이상적 자기이미지와 현실적 자기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7. 현실적 자기이미지와 이상적 자기이미지가 일치하지 않는 남자대학생은 일치집단보다 의복의 동조성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실적, 이상적 이미지 중에서 의복 유행과 의복 심미성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이미지는 개성적 이미지로서 현재 개성적 이미지가 높거나 이상적으로 개성적 이미지를 추구하는 남자는 자기 이미지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의복의 유행과 심미성을 중요시하였다. 또한 개성적 이미지가 높은 남자는 정숙성과 동조성을 중요시하지 않았다. 이상적 자기이미지 중 성숙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남자는 정숙성과 편안성을 중요시하고 유행에는 관심이 낮은 편이었다. 즉 이상적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성숙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태도가 의복을 통하여 나타났다고 본다.

본 연구의 한계는 조사대상자가 서울지역 남자대학생으로 제한되었다는 것과 자기이미지 척도가 표준화된 도구가 아니라는 점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자기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환경변인을 폭 넓게 고려하며, 자기이미지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측면의 의복 특성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시된다. 또한 의복구입 과정에서 다른

심리적인 변인과 자기이미지의 영향이 동시에 조사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원(1974).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연세논총」, 11, pp.349-374.
- _____(1979). “한복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한 사회심리학적 의복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7(3), pp.1-11.
- 고에란(1987). “성인남자의 연령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5(1), pp.1-10.
- 권순기(1990). “남성 유행혁신자의 의복행동과 라이프 스타일 특성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광경(1973). “일학년 여대생의 가치관과 의상관심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미라(1991). “점포이미지/자아이미지 일치와 점포선호도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김병미(1975). “청소년의 의복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3(3), pp.31-45.
- 김정호(1978). “사회계층과 의복행동: 서울시내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 pp.45~52.
- 김치환(1993). “상표이미지와 자아이미지에 관한 연구: 화장품 구매행동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김효경, 이명희(1992). “의류광고에 대한 평가, 유행몰입 및 사회적 태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3), pp.31-45.
- 나영은(1992). “의복스타일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사성과 친숙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남미우(1987). “여대생의 자아이미지와 선호 상표이미지와 일치도가 의복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노미경(1983). “청년기 여성에 있어서 변화지향태도와 사회경제 수준에 따른 패션리더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숙경(1991). “남성의 의복행동과 자아개념 및 직업만족도와와의 상관 연구: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은주(1984). “직장남성의 의복행동과 지각형성 및 직업만족도와와의 상관 연구: 정신노동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찬부(1980). “의복행태와 욕구와의 관계연구.” 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6, pp.125-151.
- 오창호(1984). “자기개념이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기개념/제품 이미지 일치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경손(1979). “성인남자의 자아개념과 의복행동과의 상관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남순(1989). “유행 수용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명희(1983). “예의·정숙성과 심미성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의 의복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_____(1987). “기혼여성의 외모만족도와 의복행동 및 신체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생활문화연구」, 창간호, pp.177~193.
- 이명희, 김현주(1997). “의복스타일 이미지 선호와 자기 이미지와의 관계 연구.” 「복식」, 33, pp.41~53.
- 이선화(1984). “성인남자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가치관과 사회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석

- 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은주(1982). “가정의 가치지향성과 개인의 의복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화연(1987). “유행선도력 예측 변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임병수(1984). “자아이미지와 제품이미지의 합치성이 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장은영, 이선재(1994). “의류상품 이미지에 의한 의복구매과정 모형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8(5), pp.749-764.
 - 정근택(1987). “상표이미지와 자아이미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미실(1982). “남자 중고등학생의 의복행동과 지각향성과의 상관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정인희, 이은영(1996). “의복과 자기이미지.” 『한국의류학회지』, 20(1), pp.207-217.
 - 정하신(1985). “여고생의 성격특성과 의복선택 요인과의 상관관계 연구 : 서울 시내 여고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3(4), pp.1~7.
 - 정혜영(1985). “성인여성의 가치관과 의복행동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 최순희, 박찬부(1981). “여성의복행태에 대한 남녀별 반응과 가족가치관과의 관계연구.” 『한국의류학회지』, 5(2), pp.41-48.
 - 한미련(1994). “여대생의 사회적 태도와 신체노출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홍금희(1984). “성인여성의 의복만족도 결정변인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8(3), pp.9-17.
 - 홍선옥(1983). “성인남자의 의복행동과 사회적 내향성-외향성 성격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Behling, D.(1985), “Fashion change and demographics : A mod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4(1), pp.18-24.
 - Christiansen, k., & Kernaleguen A.(1971), “Orthodoxy and conservatism modesty clothing selection.” *Journal of Home Economics*, 63(4), pp.251-255.
 - Creekmore A.M.(1963). “Clothing behaviors and their relations to general values and to the striving for basic needs.”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_____(1971). *Methods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 Michigan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Project no. 783, Michigan State Univ. , pp.96-101.
 - Gutman, J., & Mills, M.K.(1982). “Fashion life style, self-concept, shopping orientation, and store patronage : An integrative analysis.” *Journal of Retailing*, 58(2), pp.64-86.
 - Humphrey, C., Klaasen, M., & Creekmore, A.M.(1971). “Clothing and self-concept of adolescent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4), pp.246-250.
 - Sirgy M.J.(1982). “Self concept in consumer behavior :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9, pp.287-300.
 - Tigert, D., Ring, L., & King, C.(1976). “Fashion involvement and buying behavior.”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3, pp.46-52.

ABSTRACT

Self-Image and Clothing Behavior of College Me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the contents of self-image of college men and to

investigate how clothing behavior was influenced by self-image, age, major, and the expenses of clothing.

Samples were 342 male students of university in Seoul.

Results of this study were following :

1. Four factors of self-image derived by factor analysis : F. 1 'mature-unmatured' ; F. 2 'characteristic-ordinary' ; F. 3 'conservative-open' ; F. 4 'dominant-submissive'.

2. 5 variables of clothing behavior were influenced by real self-image. Fashion was influenced by characteristic, open, dominant image, and the expenses of clothing.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4 variables was 29.3%. Aesthetics was influenced by characteristic, submissive, conservative image, the expenses of clothing, and age($R^2=28.7\%$). Modesty was influenced by conservative and ordinary image($R^2=6.5\%$). Conformity was influenced by

ordinary image and the expenses of clothing ($R^2=5.7\%$). Comfort was influenced by dominant image and age($R^2=5.3\%$).

3. 5 variables of clothing behavior were influenced by ideal self-image. Fashion was influenced by unmatured, characteristic, submissive image, and the expenses of clothing ($R^2=28.9\%$). Aesthetics was influenced by characteristic image, the expenses of clothing, and age($R^2=23.5\%$). Modesty was influenced by conservative, mature, and ordinary image ($R^2=8.3\%$). Conformity was influenced by ordinary image($R^2=1.9\%$). Comfort was influenced by mature image and age($R^2=5.6\%$).

The findings indicated that self-imag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fashion and aesthetics, and characteristic image and conservative image were important variables that affected clothing behavior of college men.